

한국전통도시숲의 계획 개념에 관한 연구

- 경주시 전통도시숲을 중심으로 -

장동수

국립 환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전통도시숲은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한국도시에 있어 왔으며, 도시 내부나 인접지에 위치하여 왔다. 전통도시숲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한국의 전통도시숲은 자연적인 야생의 숲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이다. 둘째로, 전통도시숲은 특별한 조성 의도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로, 숲은 오늘날의 도시공원처럼 공공공간에 조성되어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통도시숲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자부심이거나 고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왔다.

오랜 기간동안 한국의 전통도시에는 환경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 다양한 도시숲이 조성되었는데, 통상 이 숲은 '임수(林藪)'라고 칭한다. 경주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통도시숲이 있어 왔다.

한국의 전통도시숲은 도시의 장소성을 쉽게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전통도시숲은 장소를 구성하는 의미, 외관 그리고 활동으로 구성되어 도시의 장소적 정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조선 중엽에 만들어진 경주의 고지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도시 경주를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전통도시숲의 조성 계획 개념과 역사적 배경, 경관적 특성, 기능 그리고 활동 등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역사도시인 경주의 전통도시숲을 대상으로 전통도시숲의 조경계획적 개념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통도시숲의 의미, 외관과 기능, 활동의 장소적 차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경주의 전통도시숲

경주는 북으로 소금강산, 서로 선도산, 동으로 명활산, 남으로 남산으로 에워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상 경주지역에는 22개소의 도시숲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의 전통

도시숲을 고대신라, 신라, 고려, 조선의 4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대신라: 나정(蘿井), 오릉림(五陵林), 아진포(阿珍浦), 계림(鷄林), 천경림(天鏡林), 신유림(神遊林)
- 2) 신라시대(5세기 중엽): 왕가수(王家藪), 봉황대(鳳凰臺), 고양수(高陽藪), 임정수(林井藪), 지북림(枝北林), 유림(柳林), 서부림(西部獵林), 울림(栗林)
- 3) 고려시대: 오리수(五里藪), 한지수(閑地藪), 동정수(東亭藪), 비보수(裨補藪)
- 4) 조선시대: 남정수(南亭藪), 어대수(魚岱藪), 교리택목(校里宅木), 고성수(古城藪)

2. 전통도시숲의 형성배경과 의미

전통도시숲은 그 도시 내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그 도시의 영혼이 모셔진 장소, 즉, 장소령이 있는 곳의 주변에 조성되어 그 장소의 영험과 권위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장소적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경주의 전통도시숲에 나타난 형성 배경과 의미는 주로 토착 신앙적 설화와 풍수지리로 구성된다. 경주 전통도시숲에서는 비각, 제단 등의 토착신앙적 시설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도시숲이 그 주변 지역 토착신앙의 중심지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고대신라시대에 경주 전통도시숲의 조성배경은 대체로 토착 신앙적 영향에 의해 신화나 설화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사례로서, 호림은 지역 관청에서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던 숲으로서, 나정숲, 오릉림, 아진포 그리고 계림을 의미한다. 여기서 호림은 고대 신라 시조의 탄생지이거나 무덤에 있는 숲이다.

풍수지리에 의한 한국 전통도시숲은 도시를 에워싸는 산이나 능선, 하천과 수로 그리고 수구 등에 조성된 것을 말한다. 남의 시선을 피해 남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시의 경계부에 숲을 조성해 외부를 조망하도록 하면 된다. 숨어서 보는 전망의 기회를 갖는 경관은 이 둘다를 갖지 못한 곳보다 훨씬 더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한국전통도시의 위요경관은 도시숲 조성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풍수적 의미를 갖는 숲은 본래 풍수지리설의 '길지'를 만드는 가치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서 길지관은 트임이 없이 완전히 둘러싸인 마치 성과 같은 위요경관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경관은 과거 사람들이 각종 재해나 전란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고자 하는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풍수지리적 사고에서 보면 전통도시를 에워싸는 지형은 집의 울타리와 같이 트임이나 허한 곳이 없어야 하는데, 이 풍수적 경관관으로 인해 발생한 경주시 전통도시숲을 보면 후면 산에서 흘러내린 산줄기 위의 숲, 수구의 트인 곳을 메우는 수구막이숲, 형국보완을 위한 조산숲, 주변 습지를 활용해 허한 곳을 보완하는 수로와 그 주변숲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풍부한 수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구릉과 산의 모든 식생을 보전하였다. 풍수적 관점에서 북측에 대체로 위치한 주산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해당 도시의 수자원 확보에 가장 중요한 산을 말한다. 따라서 이 주산으로부터 뺀 내린 주맥구간에 나무가 없으면 필히 조성하고 보전해야 한다.

경주의 도시중심은 삼면이 강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평탄지이고, 다른 하나인 동측에만 낮은 구릉지를 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명활산의 남동측 약 4km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동안 주산에서 경주로 뺀 주맥구간은 관에서 보전하였다. 경주의 주산인 낭산은 106m의 작은 언덕으로 경주시내와 명활산 중간에 위치한다.

신유림은 신이 내려와서 소요하며 놀던 곳이란 의미로 이곳에서는 벌목이 금지되어 왔다. 또한, 한지수는 보문동과 구황동 사이에 위치한다. 만일 한지수는 경주사람들이 제례를 개최하는 경주의 주산으로부터 뺀 주맥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재되어 보전되었다. 만일 이 주맥구간이 훼손되거나 절단되면 많은 토양과 식생을 보충하게 된다.

형국론에 따라 풍수지리에 전문가는 지형의 형태를 새나 동물 혹은 인간의 형태로 비유하여 길흉을 판단한다. 산의 형태가 동물의 형태라 비유될 때 그 산아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동물의 성격과 관련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경주에서 풍수적 의미의 전통도시숲은 주로 전통도시의 수구나 곡구 부근에 입지해 입구경관을 형성하거나, 후면 산의 줄기를 따라 조성되어 도시 중심과 연결된 축경관을 형성해 그 도시의 장소적 경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전통도시숲은 해당도시를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만드는 주요 수단인 것이다.

3. 전통도시숲의 외관과 기능

전통도시숲은 반드시 전통도시와 관련되어 일정지역을 점유하는 대상이며, 그 입지가 중심시설 주변이거나 주변 경계지역

인 점을 통해 보면 전통도시숲이 그 도시를 장소로서 인식케 하는 주요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장소란 '나'라는 중심과 '우리'라는 범위가 정해져서 '그 안에 있는' 느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성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중심성과 그 범위를 뚜렷이 하는 경계가 장소성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도시숲의 장소성은 경주 고지도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고지도 내 자연 경관적 요소로는 산, 강, 바다 그리고 전통도시숲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도시숲의 규모나 형태가 스케일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이 지도가 실측된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장소적 이미지를 모아 그린 듯하다. 이 고지도 속의 전통도시숲은 그 도시의 중심 건물과 동등한 중요성이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전통도시숲의 실용적 기능은 수해방지, 방풍, 그리고 방화 등의 재해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 제방에 숲이 조성되면 홍수시에 유수의 빠른 흐름을 완화하고 잔뿌리가 뺀 제방의 견고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수지나 농수로 제방의 숲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 경작지로의 수분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몇몇의 전통도시숲은 하천이나 강, 저수지 혹은 수로의 제방에 조성되었다. 이 제방의 숲은 범람방지, 방풍, 그리고 사람들의 휴식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목적에 의해 조성되어 관리되어 왔다. 이처럼 한국에서 수변에 조성된 숲은 수변 제방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주의 도시숲은 다양한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남정수는 휴게장소, 오리수와 어대수는 수해방지, 교리택목은 방풍, 그리고 고성수는 생산 기능이다.

경주의 중앙을 고려해 볼 때, 경주시로 불어오는 바람방향은 북, 남남서, 그리고 남동방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주에는 경주의 남천을 따라 남에서 남동으로 형성된 계곡, 서천을 따라 서에서 남으로 형성된 계곡, 그리고 그 반대인 서에서 북으로 형성된 계곡이 있다. 특히, 경주 지역은 태풍이 이러한 계곡을 따라 불고 겨울에는 북서의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된다. 이 경우에 바람은 평탄지나 물길을 따라 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계곡에는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천은 남측 월성방향에서 서측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이 남천에는 수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숲이 많았다. 남천의 남안에는 위로부터 동정수와 오룡림이, 북안에는 신유림, 계림, 남정수 그리고 천경림이 위치하고 있었다.

경주는 북쪽을 열린 입지이기 때문에 북측에는 여러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북측의 숲을 '수구막이'라고 한다. 수구막이는 물이 빠져 나가는 수구에 조성되는 도시숲이다. 전통도시에 있어 물이 빠져 나가거나 들어오는 수구는 매우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수구막이는 전통도시를 산과 숲으로

위요될 수 있게 한다.

경주의 수구는 소금강산과 금강대 사이로 경주지역의 모든 물길이 흘러나가는 곳이다. 경주의 수구막이는 고양수, 임정수, 유림, 지북림, 서부림 등으로 구성된다. 이 숲들을 모두 복원해 보면 동에서 서로 연결되어 임정수, 고양수, 지북림, 유림, 서부림의 큰 숲을 형성하게 된다. 수구막이는 여름의 햇볕과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막아 주고 도시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

4. 전통도시숲의 활동

전통도시숲은 놀이, 제례, 모임 등이 발생하는 도시 공공적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을 겸하였던 곳으로 인근 지역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거나 잘 아는 장소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잘 기억하는 곳이란 도시 주변의 다른 조성된 숲과 달리 전통도시숲을 도시 내 한 장소로서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전통도시숲이 주변의 문화나 삶과 관련되어 출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 숲간의 상호 관련된 행위나 활동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가능했던 것이다.

신라시대의 경주 도시숲은 사람들의 활동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수렵활동 장소로는 고양수, 임정수, 지북림, 유림, 서부림이 활용되었고, 율림과 동정수는 휴게장소로, 왕가수는 제례 장소로 활용되었다.

III. 결론

주요 시설들이 전통도시의 중심축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숲은 해당시설의 시각적, 상징적 위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전통도시의 전면이나 옆이 열린 지형이 되면 이곳으로 흘러드는 바람을 막기 위해 도시숲을 반드시 조성해 왔다. 주요 도시시설 주변의 도시숲은 대개 겨울 북쪽의 찬바람과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숲은 도시공원처럼 사람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의 기능으로도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의미, 외관, 활동 등 세 요소 측면에서 볼 때 전통도시숲은 한가지 요소만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장소적 요소를 갖는 대상이며, 이 세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장소적 정체성이 높은 숲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도시숲은 독특한 한국문화적 산물이며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도시 내나 주변에 입지하여 사람들의 휴식, 놀이, 운동 등 다양한 행태가 수용된 장소이면서, 자연재해를 막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전통적 도시공원녹지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도시숲과 관련되어 풍부한 의미가 출현하는 것은 전통도시숲이 주변의 다른 장소들보다도 관심이 높은 대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반대로는 이와 같은 의미들이 전통도시숲의 장소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이와 같은 전통도시숲의 의미들을 과거의 잊혀진 역사적 기록 정도로밖에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도시 내에 숲을 조성해 그 곳을 장소화 하는데 있어 매우 인색했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과거 숲에 관련된 의미들의 발견을 통해 장소화의 철학과 가치관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통도시숲은 건물이나 시설의 중심부나 강과 능선 혹은 성곽의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의 장소성을 고양시키는 두드러진 시각적 요소였다. 그래서 숲은 도시의 명소가 되기가 쉽다. 숲과 같이 중심이나 경계를 강조하는 경관구조는 한국전통도시의 장소적 정체성을 돋보이게 해 준다.

전통도시숲으로 둘러싸인 울 안에 살게 되어 사람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내부적 친밀성이 증진됨으로써 '저기가 아닌 여기'로서 친숙한 도시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활하고 자란 터전으로서 혹은 인상깊은 장소로서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현재 거주하는 곳 주변에도 숲으로 둘러싸인 유사한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타 지방에 이주한 민족들의 경우에 보면 과거에 살았던 장소와 유사한 장소를 그들 주변에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도시에 전통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분할하거나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완성하여 친환경도시를 건설하는 가장 좋은 생태적 방법 중에 하나이다.